

# 점령하라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특보3호

전화번호 010-6201-2383  
블로그 blog.jinbo.net/occupy77  
이메일 occupy77@jinbo.net  
후원계좌 국민 812702-04-215225(조영테)

쌍용차투쟁 승리!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 전국 8천여 명의 노동자, 쌍용차 동지들과 희망을 나누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단 1주일 만에 8,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투쟁 승리!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희망노동자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 모두가 한마음 “힘내서 꼭 이기자!”

쌍용차 노동자들과 똑같이 차를 만드는 현대차·기아차·한국GM의 모든 완성차공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경주·대구·포항·경기·충남의 부품사 노동자들, 조선소·제철소·화학섬유공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제조업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의 철도·지하철·사회보험·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진 화력발전소와 국공립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까지, 그리고 병원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 화물연대 노동자, 농협과 대

한생명을 비롯한 사무금융직 노동자들도 “쌍용차 동지들, 힘내서 꼭 이겨라!”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장애인과 교수·연구자들도 함께 했고, 뜻을 같이 한 수많은 개인들, 그리고 전국적 단체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정치·사회·노동단체 회원들도 동참했습니다.

### 겨울 찬바람 속 연대 열기 ‘후끈’

찬바람 속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일일이 서명운동과 모금을 받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장갑을 벗어 서명하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서명하라고 권유하던 노동자, 준비해간 볼펜이 없어서 잘 나오지 않자 갖고 있던 볼펜을 기부한 노동자, “수고하십니다”며 큰 소리로 격려해 주던 노동자들, 지갑을 놓고 왔다면 식당에서 다시 사물함까지 갔다 와서 모금에 동참해준 노

동자, 출근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회사 출입문 앞에서 서명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려주던 노동자들.

### 격려와 응원의 말, 말, 말

“아는 사람 중에 쌍용차 휴직자가 있는데 아직도 복귀를 못해서 힘들어 하더라.” “정리해고가 철회되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오늘은 지갑이 없어서 모금을 못하지만 앞으로 쌍용차 투쟁에 꼭 연대하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절대로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현장 동지들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진심으로 함께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모르고 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 다. “1월 13일 희망텐트 포위의 날이 있던데 왜 노동조합은 함께 가자고 조직하지 않는가?”

〈노동자 참가단〉은 현장 동지들의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활동

이 아직 부족하다는 채찍질이라 생각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희망노동자 선언’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석화된 노조 지침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얼마든지 아래로부터 자발적 연대운동을 조직할 수 있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쌍용차 동지들! 힘을 냅시다! 추운 날씨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전국의 노동자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1,600만 노동자들의 마음이 쌍용차 투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연대운동을 확산시킨다면, 경제위기와 공황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을 향한 멋진 반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 승리!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희망노동자 선언”은 1월 14일자 경향신문에 8천여 명의 선언자 명단과 함께 전면광고로 실릴 예정입니다.



기아차소하리공장

〈희망노동자선언에 참여한 노동자들〉  
수많은 지역에서 서명과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철도



당진화력 환경지부



기아차화성공장



경주지역



GM창원공장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

# 다가올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도화선!

작년 12월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희망텐트촌 투쟁을 시작하고 1차 포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이 투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왜 쌍용차 투쟁인가?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왜 쌍용차 투쟁에서 이러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일까?

**모든 노동자의 희망을 위한 투쟁**

최근 '희망노동자 선언' 운동에 쏟아진 1만 명 가까운 서명과 모금운동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현장 노동자들은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건설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만일 이 투쟁이 쌍용차 해고·휴직자들의 현안 요구만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 투쟁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미 정리해고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다.

지금도 대우자판,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풍산마이크로

텍 등 전국의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와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텐트촌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른바 '산재'들의 죽음으로 쌍용차 현장이 자본의 천국, 노동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청나게 뺏겨진 노동 강도, 공장 문에 설치된 지하철식 게이트와 군인 복장을 한 용역경비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현장통제,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어용노조를 보라. 쌍용차 자본은 투쟁하는 노

동자와 민주노조를 모두 쫓아내고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갈수록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우리 회사 사장, 관리자와 똑같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쌍용차 노동자와 나의 처지는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바꿔내기 위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나의 투쟁,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

## 자본가 국가에 맞선 노동자계급투쟁으로!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은 국가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상징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에 이미 '정리해고 분쇄'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총고용 보장'과 '분사화·외주화 저지'라는 요구를 함께 내걸었다. 단순히 정규직 해고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를 77투쟁에 담았던 것이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19명의 연쇄적 타살이 진행된 현재, 국가권력에 맞선 쌍용차 투쟁은 다시금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찌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본가 국가를 상대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실업 문제 해결, 생활임금을 쟁취해낼 전국적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동지들,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서 2012년 거대한 투쟁의 포문을 열자! 쌍용차 정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의 전선은 바로, 전국 노동자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전선이다.

**2012년 노동자투쟁의 도화선으로!**

아울러 쌍용차 투쟁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자본가들의 구조조정 공세 신호탄을 상징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과연 노조로 단결해서 우리 고용을 지킬 수 있을까?”라며 멍청멍청하던 전국의 노동자들 앞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장은 우리 노동자의 것”임을 선언하며 전체 노동계급 앞에 당당하게 점거파업의 길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세계 자본주의는 훨씬 더 깊은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전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위기가 심각하지 않았던 한국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예정이다.

저들은 또다시 구조조정·정리해고 공세로 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쌍용차 투쟁은 2012년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설 노동자 투쟁의 서막이다.

쌍용차 투쟁을 방기한 채 자본가들의 복지논쟁에 편승한 총선심판론, 총선 후 총력투쟁론을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 계

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모든 노동자는 희망텐트촌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의 투쟁과 희망텐트촌 투쟁이 만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과 학습지 노동자들을 비롯한 900만 비정규직의 투쟁이 있다. 민영화를 막아낼 철도 및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 법인화 등 대학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청소·식당·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이 투쟁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하나 된 힘으로 자본가 국가를 무너뜨릴 계급적 투쟁을 만들어내고, 노동자에게는 고통만 떠넘기는 자본주의를 엮어버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투쟁의 출발점을 쌍용차 희망텐트촌에서 시작하자! 그곳에서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외치며,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자!

2012년,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노동해방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